

■ 한국전력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 현장 가보니 ...

한전 보증 중기 제품에 해외바이어들 눈독

본사 나주 이전 뒤 규모 키워 지역민 참여 축제로

“한전이 보증하고, 홍보해주는 제품인 만큼, 해외 바이어나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중소 기업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같이 가는 길, 가치 있는 길’을 주제로 열린 ‘2015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국내외 전력 산업 관계자와 바이어의 발걸음 붐볐다. 본사 사옥 앞마당에서는 200여개의 전력기자제 및 기업 전시부스가 참여하는 ‘빅몰’(Big Mall)이 열렸다. 부스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압 기록기나 써지보호기(전압안정화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력과 관련한 갖가지 부품이 시장 매대처럼 탁자에 전시됐다. 전 세계에서 나주를 방문한 해외 전력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전력부품업체들의 제품을 지켜보며 상담을 진행했다.

한전 협력업체인 씨지프리(서울)의 김태진 이사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직접 마련한 행사여서 중소기업 제품 이터라도 전 세계 전력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한전 본사가 나주로 이전한 뒤 행사 규모가 예년보다 훨씬 커진 만큼, 제품 수출이나 인지도 상승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동반성장 페스티벌은 지난 2013년 전력산업계의 우수기술 교류와 사업화를 위해 전력인을 한데 뭉친 소통의 장으

로 마련됐다. 2회째까지 ‘동반성장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열렸지만 한전 본사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규모를 키워 이전기관 전체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격상시켰다.

오후에 진행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계약식에서는 7개국 12명의 해외바이어와 보성파워텍 등 10개 기업 간 수출계약식이 열렸다. 한전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협력 기업’인 보성파워텍은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한전 본사 앞 특설 경기장에서는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가능경기대회가 함께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80개팀 160명의 선수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8대의 ‘바가지’에 탑승해 땅을 흘리며 기능을 뽐냈고, 보기 드문 광경은 주민들에게 눈요기를 제공했다.

수도권에서 온 한전 협력사 관계자들은 한전과 광주시·전남도가 추진중인 ‘빛가람 에너지 밸리’의 조기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업체 이전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서 온 A사 관계자는 “한전 본사 이전을 계기로 기업 이전을 고민해 봐도 매력을 느낄만한 ‘한방’이 없다”며 “각종 지원책이 크게 외닿지 않아 담당 많은 협력사들이 이전하기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2015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국내외 전력 산업 관계자들이 전력관련 기업들의 전시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27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3월 동시선거로 당선된 지역농협 조합장과 지역본부·농협은행 간부들이 ‘2015년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갖고 윤리경영 실천과 깨끗한 농협 구현을 다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0.89 (+3.39)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1)
- ▲ 코스닥 709.01 (+9.82) ▲ 환율 (USD) 1105.80원 (+0.30)

광주서 가장 비싼 땅은 충장으로 우체국

m²당 1040만원 전남은 순천 연향동 ‘빈플’ 진도 가사소리 전국 최저가

광주지역 최고의 ‘노른자위 땅’은 동구 충장로 우체국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선 순천시 연향동의 빈플대리점의 지가가 가장 높았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4.63% 상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광주는 지난해보다 3.20% 상승했다. 전남은 5.97%의 변동률을 기록, 전국 평균을 넘었다.

광주의 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첨단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빛그린산업단지 토지수용 및 진곡산업단지 인근 개발 진행,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 및 택지개발사업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혁신도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나주)와 칠성지구, 덕례지구, 용강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이 진행된 전

남은 세종(20.81%), 제주(12.46%), 울산(10.25%), 경북(8.05%), 경남(7.91%), 대구(6.19%)에 이어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영광은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및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 등에 힘입어 지가가 지난해보다 14.79%나 올랐으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변동률 상위순위 3위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m²당 1040만원)이었다. 전남은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빈플대리점(m²당 39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전남에 있었다. 진도군 조도면 가사소리는 m²당 86원(3.3m²당 283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 대로 매매한다고 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m²를 팔아 가장 가격이 낮은 땅 93만8372m²를 살 수 있다. 최고·최저가는 다만 표준인 표준지 가운데 산정된 것일 뿐 전국의 모든 땅 가운데 가장 비싸거나 싼 곳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빛가람 에너지밸리 최우선 정책은?

“기술 선도 에너지 기업 유치”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조사

한국전력 임직원과 지역 전문가들은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의 최우선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지향하는 기술선도 기업 유치’를 꼽았다.

28일 한전의 ‘에너지 밸리 대토론회’에서 공개된 한전경제경영연구원의 최근 조사(이전기관 임직원 157명·지역전문가 125명)에 따르면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정책 목표로 응답자의 52.9%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 지향’을 선택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 벨트(30.3%), 한국의 실리큰 벨리(5%), 창조경제혁신지구(4.2%), 기술특구 및 과학타운(0.8%)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정책으로는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유치가 54.6%로 가장 많았다.

산학연 연구개발 투자확대(19.3%), 교

육 및 정주여건 개선(10.1%), 맞춤형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7.6%), 에너지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5%), 중소기업 육성 펀드 조성(2.5%) 등도 제시됐다.

에너지 밸리의 전문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 기관 임직원의 경우 50% 수준이었지만 지역 전문가들의 기대감은 80%로 더 컸다. 전력산업 제조업체 104곳이 꼽은 입주요인으로는 ‘적정 공장용지 등 입지확보 용이’라고 답한 업체가 66.3%로 가장 많았다.

이날 토론회는 한전의 ‘동반성장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로 열렸으며 정부와 지역전문가, 산·학·연 전문 인사 9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전은 토론회에서 나주 이전을 본사 건물 이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는 의지의 대표적 사례로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을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



김한 JB금융그룹 회장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공동 기획한 1st카드에 첫 번째로 신규가입을 한 뒤 카드를 전달받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전북은행, ‘1st카드’ 공동 출시

JB금융그룹(회장 김한)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st카드’를 공동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1st카드’는 JB금융그룹의 첫 신용카드 공동상품으로, 전 가맹점 이용액의 0.5%를 고객의 선택에 따라 캐시백 또는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이와 함께 전국 영화관에서 3000원 할인,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 5회 면제 등 기본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고객별 맞춤 서비스로 외식, 주유, 대형할인점, 이동통신 등 다양한 업종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업종에 대해 최대 2.0%의 혜택을 제공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입출금이자유로운 알찬자유예탁금,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두암신협 263-0136 본점 (말바우 사거리)
두암신협 264-1232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두암신협 572-9511 첨단지점 (첨단지점 청문 맞은편)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인천총판 | 010-9087-4859
- 강원총판 | 010-5792-8872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전남총판 | 010-9087-4859
- 제주총판 | 010-2324-952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집중

※ 마스코트 제품 및 몰티버브 취급권을 위 총판에서 오직하고 있습니다. (미리, 편이, 전사당해 특 담배스메인 지참을 받으신 모든 점주님)